

연중 제15주일

제 1 독서 : 이사 55, 10-11
제 2 독서 : 로마 8, 18-23
복 음 : 마태 13, 1-23

숲 정 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마태 13, 23).

강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

박종탁 신부 / 고산천주교회

하느님,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무더운 날씨 탓만은 아니시지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나의 뜻을 이루지 않고서는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호소하시면서 애태우십니까? 혹시 임수산나와 문 신부님 때문에 그러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이 사야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는 그냥 돌아오지 않는” 당신의 말씀은 지령으로 매도하는 현실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결코 지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행한 적은 더욱 없습니다. 제가 지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내가 아버지로 믿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땅의 민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사명 그것입니다”(1989. 11. 27. 문 신부님 법정진술).

사실 이 일은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 고통과 분열을 초래하였는지를 잘 알고 계시지요?

과연 당신의 말씀대로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서도 행복하다고 여기는, 내 탓이 아닌 모두가 네 탓이라고 여기는 마음의 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하느님, 겸손되게 통회하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돌과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주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봄으로써 보게 하시고, 들음으로써 알아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지령을 이루고 삼으로써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같이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나이다. 아멘.

소리

“어떤 계산”

$$350 \div 20 = 17.5$$

세상에 이런 계산도 있는가? 말하자면 이런 계산 말이다. ‘누나는 공장에 다닌다. 아침부터 밤까지 미싱돌리는 일만 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미싱을 돌리고 또 다섯 달 반을 더 돌린다. 입지도 먹지도 쓰지도 않으면서... 열일곱 달 반을 일해 번 돈을 꼬박꼬박 모았다가 외제 바지 하나를 산다. 350만원짜리 하나를...’ 이런 계산, 이런 서글픈 계산이 성립되는 세상이다.

치우쳐도 너무 치우쳐 있다. 한 하늘 아래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서서 사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로 어찌 그렇게 다를 수 있는가?

(어디 그것이 우리나라뿐이더냐 돈 많이 버는 사람 잘 쓰고, 돈 못 버는 사람 굶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더냐. 개같이 벌여 정승같이 쓰고, 가난은 나라도 못 막는다는 말도 있지 않느냐?)

아니다. 350만원짜리 바지는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다. 한 달에 십몇만원 받으며 밤새도록 미싱을 돌려댄 우리 누나가 벌어들인 달리가 아니더냐. 벌게 해준 우리가 없었으면 어찌 오늘의 당신이 있었을까?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재물은 썩지도 않고 도둑맞을 염려도 없는 하늘 나라 창고에 쌓아 두어야 한다. 바로 가난하고 굶주리는 네 이웃에게 쌓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돈도 같이 살아가는 이웃을 보아 가면서 써야 한다. [E]

숲정이 산책



요즘 국민들의 심정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최근 교황청 비그리스도교 사무국은 날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통일교(원명: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전세계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에게 이 단체의 모든 활동에 관여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통일교는 반공운동의 기치 아래 종교와 정치를 극도로 혼동시키고 있다.
- 통일교는 영리를 위한 막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주가 복역하는 등 많은 경우 재정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다.
- 통일교의 신도 모집과 원리주입 전략이 세뇌활동이나 가족과의 격리 등 의심스러운 것이다.
- 통일교 스스로는 그리스도교라 주장하고 있지만, 메시아로 자처하는 문선명과 그 교리상 비기독교적이며, 기독교를 가장한 것이다.(다음주 계속)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마태23, 3)

다음주부터는 각 본당마다 연례 행사인 ‘하기 수련회’(산간 학교, 코이노니아, 여름캠프)가 시작된다. 철저한 준비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깊은 물이 있는 곳은 아예 선정 기준에서부터 제외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그런데, 바로 이 봉사자 구하기가 너무도 힘들다는 것이다. 시골 본당이야 아예 젊은이가 없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신자수가 천 명이 넘는 도회지 본당에서까지 구인란이 심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가슴 아픈 현상이다. 일반적인 비율로 보아 20대, 30대 초반의 봉사 가능한 신자수가 5%는 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천 명 기준의 본당에서도 50명의 교리교사나 지도자가 가능하리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실제로는 10명의 봉사자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무엇인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나, 그 무엇보다도 기성인들의 잘못된 종교 관념에서 파생된 결과라고 본다. 신앙생활을 하되 자신의 이권에 누(累)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려는 장사꾼적 신앙관에서 파생되는 결과이다. 교회도 좋고 신앙도 좋지만 아까운 시간과 재력을 허비하면서까지 수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좋은 대학 졸업하고 출세하기까지는 할 수 있는 한 성당 일은 멀리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냉철한 판단을 내린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러한 현상은 교회의 지도급 인물들이나 생활 정도가 괜찮은 가정, 영세한 지가 매우 오래되는 가정에서 더 많이 일고 있음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또한 이 하기 수련회에 자녀들을 내보내지 않기로 이름난 사람들의 상당수가 교회 간부들임을

발견했을 때 어떤 느낌이겠는가? 이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본다. 교회를 잘 알고 있는 그들이 그러한 결단을 내리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일반적인 생각처럼 자기 자식 출세만 생각하고 남의 자식은 흥하던 망하던 상관하지 않는 극도의 이기주의의 소산만은 아닐 것이다. ‘세상에서 출세해야 교회에서도 대접받는다’라는 자기 체험의 결론만도 또한 아닐 것이다.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즉 이제까지의 교회 학생 활동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냉엄한 응답일지도 모른다. 신앙인이기에 더욱더 진취적이고 활달한, 그리고 더욱 책임감 강한 청년으로 성숙하도록 이끌어주는 학생 활동이었으면 오히려 이 활동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였으리라.

그러나 전자이든 후자이든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자녀, 나의 친지들이 모두 함께하여 좋은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배려해야 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돈벌레’화하려는 자본주의 교육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교회 교육이 정말 필요할 때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나’에 달려 있음을 똑바로 가르쳐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는 누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참으로 필요한 것이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믿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라! <마태23,1-4>

하모니 피아노 교습소
 최 귀 자 (세레나)
 이후 2단지 금성교회 옆
 ☎5-2484

임정골한의원
 원 장 임 의 성 (스테파노)
 간호사 정 성 옥 (테 레 시)
 ☎ 3-2403. 445-2403
 척추교정 및 디스크상당
 (군산) 국도극장 뒤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 대여
최 윤 경 (유리앤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수시모집 · 해외연수생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3-2496. 2-8653

동인당중국한의원
 원장 조 종 례 (기브리엘)
 ☎87-8093

평안북도 | 평안남도 | 평안북도 | 평안남도 | 평안북도 | 평안남도 | 평안북도 | 평안남도 | 평안북도 | 평안남도

● 동인당중국한의원 ●

잡 관!

'90년 여름 해변미사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다. 더위를 피해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떠나는 자동차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온 가족이 함께 피서를 떠나는 모습은 그 모습 자체로 더위를 잊고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한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 어두움이 서리는 것은 '주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다는 죄책감 때문이다. '일찍 돌아와서 저녁미사나 참여하지 뭐!' 하고 자위를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다. 피서도 하고 주일미사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는 피서를 떠나는 열심한 교우들이 갖는 공통적인 고민이다.

바로 이러한 교우들의 고민을 풀어주기 위한 '해변미사'를 다음과 같이 봉헌한다. 변산 해수욕장은 물론 인근 피서지(격포, 내변산 등)로 피서를 떠나는 교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변산 해수욕장 노천극장
매주일 오후4시(22일 주일부터)

교 구 소 식

※ M. B. W. 교구대회 : 7월17일(화) 오전9시30분 장소-해성학교

1. 축! 건진 : 조촌동 성당 7월 22일 오전 10시30분
 2. 선택 제5차 주말 : 8월3일(금)~5일(주일)에 있을 선택 프로그램에 미혼 남녀 젊은이를 초대합니다. 수강료(교재, 간식, 교통비 포함)는 25,000원 신청-교육국
 3. 휘콜라레 모임 : 7월 15일 오후 2시30분 가톨릭센터 대상-고등학생·일반 미혼 및 기혼
 4. 예비신학생 모임이 사정상 8월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거룩한 말씀의 회 성소자 모임 : 7월 17일(화) 오후2시 서학동 성당 (0652)84-2276
 6. 가르멜수도회 성소자 피정 : 7월 28일(토) - 30일(월) 마산 수도원(0551)71-4241
 7. 사랑의 씨앗 수녀회 성소피정 : 7월 22일 오전9시30분-오후5시 광주본원(062)571-3004 회비2,000원
 8. 착한목자수녀회 성소피정 : 7월 21일(토) 오후6시-22일 오후5시 (02)463-8055 5,000원
 9. 전교가르멜수녀회 성소 모임 : 매월 첫째주일 오후2시-5시 서울본원(02)737-7766
- ※ 축! 영명 : 15일(성보나벤투라) 이수현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마시고 마시다 보니 -

청량 음료 및 커피 달 마시기를 생활화합시다.
드링크제, 사와, 주스, 콜라 등은 식욕감퇴, 충치와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미수가루나 콩으로 만든 음료를 활용합시다.

검 도

방학 초보자 특강 (1개월 완성)

1. 정신집중으로 허약체질 개선 및 학력신장
 2. 예절교육으로 목적의식 고취 및 자신감 향상
- 남여 국교생30명(선착순), 중교생40명(선착순)
대학, 일반30명(선착순)

문의처 : 화랑관(효자동85-2264), 세심관(선복의대입구72-8009)
연수원 강사 역임, 전. 국가대표선수, 현. 대학강사
김빈첸시오(대표)

뽕여름방학대강좌

개강 : 7월 26일

냉방환비·마감전등록바람

대입 전문 전 주 한 샘 학 원

74-7424

85-7424

(코아후문 시청사이)

호심이 (884) 김병오

여당국회의원이회의중 야당의원에게심한욕을 하는 장면을보시요

야! 이 □□ 야!

국방 장관이 야당의원을 헐뜯는 장면을보시요

당신말이야, 국회가 끝나면 앞골목에서 좀 봅시다.

여사무원채용

- 제출서류 : 1. 자필이력서1통
2. 교적사본1통

자 격 : 1. 고졸 이상

제출서류 마감일:1990.7.21(토)까지

복자천주교회

☎ 86-3455

우 리 관 두

박 성 환(즈기리아)

김 명 숙(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32-11
(중앙성당 앞)

☎ 85-8848

실력, 성실, 경험으로 지도합니다

반석영어학원

- 취직, 승진시험대비 출장강의중
 - 중학영어, 맨투맨, 성문영어
- 고속버스 터미널 앞

☎ 78-0825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 후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김희 태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조 승 남
1. 그리스도공동체 수련회(목사회): 17일, 해성학교강당, 오전9시 30분~후5시. (74년도부터 한 번이라도 목사회 수련하신 모든 분을 참석바람) 2. 초중고 교리교사 피정: 20일, 9시30분~6시
 3.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23일~27일, 오전8시30분~오후12시30분
 4. 중고등부 여름성경학교: 23일~29일, 오후3시30분~6시30분(부모님 협조 요망). 5. 본당 울드레아 대회: 17일, 9시30분 출발, 장소-동산수만리, 회비-5,000원. 6. 중·고·대학생 첫영성체 누락대상자 접수: 24일, 저녁7시30분 교리사작.
 7. 모임: • 부녀회 월례회-17일, 어머니미사 후 • 성령기도회-19일, 저녁7시30분 • 형제회-21일 오후2시(미사봉헌 준비)
 8. 모기향 판매: 50개, 3,000원 9. 금주 청소: 중노2가 13, 14번 차주청소: 중노2가 15, 16번 10. 견진대상자 접수: 중학생 이상, 15일까지 마감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950,810원

* 목자

-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 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균
1. 성우회, 요셉회, 대건회 단합대회: 오늘 구이성덕 마을, 공식미사 후.
 2. 예비자 집중 교리: 16~21일 저녁8:30, 영세식: 22일 공식미사 3. 성서교리: 17일 저녁8:30, 4. 부녀회: 19일 오전10시.
 5. 구역분과회: 21일 오전10시. 6. 중고등부 하기사수련회: 23~25.
 7. 초등부 하기성경학교: 23~28일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8. 여름성경학교 후원: 육경수, 전호송 각 2만원 정운주, 김점희 각 1만원 계 60,000원 감사합니다.
금주 전례: 해설-황선주 독서①안철조 ②유경순
봉헌-안철조 씨 부부
- 차주 전례: 해설-이상인 ①최재홍 ②김인식
봉헌-최재홍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25,620원 □ 교무금: 757,600원

* 상관

-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종 석
1. 칠년회, 성기정회: 공식미사 후.
 2. 성경읽기: 요엘서전제.
 3. 금주 전례: 해설-송봉길 독서①김봉길 ②구영순
봉헌-오철규, 하태중 씨 부부
- 차주 전례: 해설-김영선 독서①유순천 ②한영래
봉헌-유순천, 유순천 씨 부부
4. 제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청소년 수련회: 학부모님들의 관심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18,980원 □ 교무금: 168,400

* 서학동

-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 오늘은 연중 제15주일
1. 회의: ①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꾸리아: 다음주일 오후2시.
 2. 알리: ①중고등부 하계수련회-7월27일(금)~7월30일(월). ②예비자를 인도합니다-교리시간 매주일 공식미사 후(성인반) 매주일 오전9시(중, 고학생반) ③성가대인원개편-회장: 이성희(벨라벳), 부회장: 조귀래(무시아), 총부: 송병연(무시아) 수고하시겠습니다. ④자모회미수가무판매-신자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⑤세실리아 성가대 성가연습-매주토요일 오전 10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557,200원 □ 교무금: 307,000원

* 용머리

- 사제관 84-8123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점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현
1. 공병수집 많은 협조 바랍니다.
 2. M.B.W 수련자모임: 7월17일 오전9시30분~오후5시 해성고 강당, 회비-2,000원.
 3. 초막공동체 안내: 7월27일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전신차 참여 바랍니다).
 4.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7월23일~26일 매일 오전9시~12시.
 5. 중등부 여름수련회: 7월27일~29일 방수리(회비 4,000원).
 6. 첫영성체교리(국교3학년이상): 8월1일~8월14일(국민학생영세교리) 7월22일까지 신청바람-교리교사.
 7. 청소년사: 서완산동1가 서편
신축헌금: 21,674,000원 입금: 11,840,000원
- 지난주 봉헌금: 379,650원 □ 교무금: 356,000원

* 전동

-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 종 석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석
- ※ 성전보수비 헌금바람 * 주일금 배가운동에 협조 바람.
1. 축! 영명: 이수현(보나 멘투라) 주임신부님-행사없음.
 2. 레지아: 오늘 오후2시. 3. 성화회: 16일(월) 저녁7시.
 4. 성모회: 18일(수) 오전11시. 5. 5월 영세자 첫교백 안내: 일(목) 오후5시, 또는 저녁미사 후. 6. 성마리아 꾸리아: 다음 오후2시 • 28일-물놀이. 8. 중·고 하계특별교리: 23일~28일 오후4시~6시 • 27일-물놀이.
- * 금주 보수비 헌금액: 2,328,833
* 현재 모금 총액: 149,252,011
* 금주 보수비 신인액: 없음.
* 현재 신인 총액: 218,531,399
□ 지난주 봉헌금: 1,344,920원

* 평화동

-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박 병 권
사무실 87-0229 사목회장 김 광 현
- ※ 축! 첫영성체식: 21일(토) 오후3시~35명의 어린이 축하합니다. * 은인을 찾습니다: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선불 접수-사실 기간-15일까지.
1. 성모회: 공식미사 후.
 2. 울드레아 야유회: 오늘 오전10시, 장소-대덕청.
 3. 청년회: 오늘 저녁미사 후. 4. 여름성경학교: 23일(월)~28일(금)까지 *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5. 꾸리아: 다음주일 오후3시.
 6. 금주 전례: 박인회 복사-최 춘, 서영상.
봉헌-신규연 부부
- 차주 전례: 문치구 복사-이병연, 박병환
봉헌-신내철 부부
- 지난주 봉헌금: 496,500원 □ 교무금: 331,500원

* 회산동

- 사제관 87-9843 주임신부 서 석 기
사무실 87-9842 사목회장 박 영 기
1. 사목회: 공식미사 후.
 2. 첫영성체: 21일(토) 어린이미사에(오후3시)
 3. 여름성경학교: 23일(월)부터 28일(토)까지-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4. 성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금주 전례: 해설-한병갑 독서-신정균, 김혜화
차주 전례: 해설-장병순 독서-이창욱, 노시연

* 효자동

- 본당 83-3841 사무실 84-0915 주임신부 유 종 석
보좌 81-0050 수녀원 84-4804 보좌신부 김 태 석
사목회장 황 수 현
1. 전교 마리아 뿔리(마리아의 도시) 21~24까지 대구 효성여대 M.B.W 교구대회(17~29) 전9:30 * 해성학교. 3. 중등성경학교및 산간학교(23~29). 4. 국교생 성경학교(7.30~1) * 국교4,5,6년 성지순례-8.3(금). 5. 모임안내: ①모카회 • 데레사회-금주 수 10:30 ②꼬미씨음-토 오후3시 꾸리아-다음주 수 10시.
 6. 중고생미사: 토 오후5시. 7. 금주 청소년사: 신춘, 협동, 쌍아파트 동편.
 8. 초·중·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특별히 협조해 주실 분 * 무실에 접수 요망.
* 성당공사를 위한 2차헌금: 274,780원 협조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915,360원 □ 교무금: 982,000원

* 효자우전

-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석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홍 석
1. 사목회: 저녁미사 후. 2. 새벽회: 공식미사 후.
 3. 7.17(수) 9:30 MBW 수련자 쉼대회(특강 및 주교님 피미사) 회비: 2,000원. 4. 두현리 공소미사: 20일(금) 오후8:30.
 4. 중고피정 및 여름수련회: 22~28 도청국교 * 학생들을 도은인구합니다.
 6. 가정방문: 18일 동원. 7.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7.30~8.30
 8. 해방공동체모임: 수요일 저녁미사 후. * 차주모임: 꾸리아
금주 전례: 해설-강진상 독서①김인수 ②이병희
기도-양해인, 공순자
차주 전례: 해설-김오규 독서①문형래 ②정진숙
기도-이종상, 박선희
- 지난주 봉헌금: 579,350원 □ 교무금: 921,000원